

解冤相生에 내포된 思想的 特性

劉勝鍾*

目次

I. 序論	III. 解冤相生에 내포된 特性
II. 解冤相生의 意味	1. 和解 사상
1. 解冤의 意味	2. 利他 사상
2. 相生의 意味	IV. 結論

I. 序論

구한 말의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이라는 대외적인 문제와 기존질서의 붕괴라는 대내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 나라의 존망이 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이었다. 즉, 1860년대의 상황은 국내외에 걸친 강한 외세의 도전 속에서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당시의 조선 사회가 겪는 말기의 진통은 羅末麗初나 여러 차례의 병화를 당해 빚어진 사회적 혼란과는 그 심도에 있어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혀 이질적인, 즉 체제의 붕괴를 가져 올지도 모를 서구 문화에 대한 경계는 衛正斥邪 運動을 일으켰고, 특히 천주교에 대한 신경질적인 박해로 나타나는 바, 그 만큼 전통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¹⁾ 이것은 외래의 문화가 종래의 전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킬 수 있는 심각한

*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1) 황선명 외, 한국 근대 민중 종교 사상, 학민사, 1983, p. 12

위기감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기존의 가치 질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으므로 외세 앞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내려 오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서 급기야는 동학혁명으로 그 민중의 위기 의식이 폭발하게 된다. 이전의 어떠한 것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기존의 가치 질서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다. 기존의 체계는 더 이상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질서 체계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더욱 혼란 속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뜻있는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위기 극복의 의지를 앞세워 존립을 위한 노력을 벌이게 되고, 그 노력의 하나로 종교사상을 통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는 혁세주에 대한 기대, 즉, 개혁이나 이상사회에 대한 바람이 절실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순사상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대순 사상에서 본다면, 혼란한 시기의 亂法 시대가 사라지고 眞法の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변혁기가 도래한 것이다. 즉, 선천의 상극 시대가 막을 내리고 후천의 상생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가 된 것이다. 「典經」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²⁾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으로,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解冤相生의 이념에 담아 선언 하신 것이다.

解冤相生은 당시의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지만, 이 사상은 단순히 어떠한 시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인 곳으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해원상생의 이념이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 된 것이라면, 이 사상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나 문제를

2) 公事, 1장, 3절

해결하려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게되어 보편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원상생 사상은 어느 한 시대나 한 국가에 제한된 특수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적용되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는 사상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내포된 특성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II. 解冤相生の 의미

1. 解冤의 의미

‘解冤’이란 용어에는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다. 원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에 국한 되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세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실상이라는 것이다. 먼저 「典經」에서 이 세상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만생을 건지려 하노라”³⁾라고하여 선천 세계의 특징을 ‘원한에 쌓인 세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넓은 시대에는 상극의 원리가 온 인류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게되어 사람들 사이에는 원한이 맺히고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어 온 인류는 무서운 불행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새시대의 참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뿌리깊이 도사리고 있는 ‘원을 풀고’ 상생의 원리에 따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지적

3) 公事, 1장, 3절

4) 최동희, 韓國思想의 源流와 龜山思想, 龜山思想研究, 龜山思想研究會, 14輯, 1989,

은 ‘解冤’의 의미에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諸行無常, 一切皆苦, 諸法無我’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문제가 들어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문제를 푸는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人間事에서 나타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이성 보다는 욕망이 앞선 행동을 하게 된다. 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 마음에 한이 맺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도,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⁵⁾라고 하신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해되는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한은 그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에 관계되는 지대한 일이다. 「典經」에서 이르기를,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수 있느니라”⁶⁾라고 한 것이나, 또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이므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고 말씀”⁷⁾하신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원한 일지라도 그 결과는 심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이 초래하는 결과를,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

p. 89

5) 教法, 3장, 24절

6) 教法, 1장, 31절

7) 公事, 3장, 29절

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⁸⁾라고 지적한 것은 ‘怨恨’이 이 세계가 불행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원한이 이렇게 전 우주에 걸친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이러한 원한은 그 시초가 있다는 것이다. 그 시원을 알고 있으므로 그 최초의 한부터 풀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⁹⁾라고 하신 것은 그 근원을 파악하여 그 시초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상호 대립과 투쟁이 일어나는 근원을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본능이 순치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순리에 따르지 않고, 삶의 참된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사적인 욕심에 탐닉하게 되고, 그 결과 常道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본래부터 그러한 상극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를 대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대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인간 자신의 마음에 관련된 대내적인 문제를 중국철학의 입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8) 豫示, 8절

9) 公事, 3장, 4절

널리 받아들여진 중국 사상의 명백한 특징은 인간은 日常的인 생활에서 自己 努力을 통하여 完全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현상이 곧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서양 종교가 인간의 사후 세계인 내세를 중시하는 것과는 자못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인 이상의 목표가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도 차이를 보여 준다. 중국철학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존재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며, 그것은 인간 자신의 自覺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 '중국철학'의 주요한 점이 '自覺'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성이나 정신성의 窮極的 源泉으로서의 創造者라는 개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조차 없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완전성의 참된 근거로서 '絶對 他者'에 대한 호소도 없다. 차라리 강조점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배움 즉, 內的 省察과 自己 變形의 끊임없는 과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배움에 있다. 儒家의 理想인 聖人과 道家가 추구하는 '真人', 佛敎가 관심 갖는 원초적 마음으로서의 復歸, 말하자면 이 모두는, 참된 自我를 향한 출발점인 지식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국 철학 목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지식은 客觀的 事實들의 주어진 구조의 인식적 파악이 아니며, 정신적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의 內的 感情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마 自我에 관한 순수한 지식이란 自我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수반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自我를 반성하고, 이해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自我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自我를 안다는 것은 동시에 自我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이 중국 철학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참된 自我인가를 중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자아를 수양하는가를 매우 중시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儒家, 道家, 佛敎에 있어서 자각이란 피할 수 없이 認識論的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로 倫理-宗敎的인 문제이다.

근본적 자각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살펴 보면, 유가의 '심'은 인간 자각의 인식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心性"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도덕성의 원천은 미리 반성하는 능력 안에 있는 그들의 비분리성에 의존한다. 맹자로 부터 고전적 개념을 빌려오면, 양명은 이 미리 예견하는 능력을 良知(일반적으로 '생득적 지식'으로 번역하나 여기서는 근본적 자각으로 표현하였다)로 정의한다. 이것은 지행이 합일하는 인간 지각의 가장 깊은 상태를 의미한다.

'심성'을 특징지우는 보다 미묘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근본적 자각은 세상을 직면하는 것으로서의 인간 오성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됨을 배우는 것은 그 자신의 '근본적 자각'의 지속적 발전을 요구한다. 종종 '생득적 지식의 확대'로 번역되기도 하는 '致良知'는 여기서는 보다 적절하게 근본적 자각의 완전한 실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양명의 "원초적 자각"이 단순히 이성적인 능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각적이거나 동기 유발적인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득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지적 직관"으로 표현한 지각의 형태다. 이것의 특징은 비관적인 자기 자각으로 우리의 본성과 칸트가 인간으로서는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물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외견상 터무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의 정당화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너자신을 알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원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과 사물의 근거가 되므로, 이성의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는 절차는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기 지식의 절차와 동일하다. 획득된 자기-지식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사물에 관한 지식에 필적하는 깊이를 수반한다는 가정은 주관적 관념론의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된 참된 자이는 결코 고립된 실재가 아니다. 유아론에서 나타나는 난처함(아마 자기 중심성의 극단적인 경우)은, 이것에 관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한, 감정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에 의해 없어질 것이다. 우주적 연대감의 의미, 혹은 장재의 "하늘은 나의 아버지며, 땅은 나의 어머니다. ---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며, 모든 사물들은 나의 동료다"라는 시적인 표현은 이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문제에

집중된 전체적인 철학적 활동은 결코 발전될 수 없다.

인간 경험의 공유성과 공통성, 즉 존재의 연속성과 단일성에 관해.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탐구와 다양성에 관해 보다 큰 관용을 호소하는 견해와 명백한 상이점은 아마 강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뭏든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존재의 도덕성에 대한 가정의 배경으로서 인간의 정체성 인식의 구심성이 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각각의 평등성이 가능하다는 원초적 자각을 예견하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자유 안에서 도덕적 가치의 마음을 보는 칸트는 의무로서, 정언적 명령으로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낀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기준점의 언급은 “도덕적 자율성의 원리”에 대한 근거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人性’ 또는 ‘自我’에 대한 문제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맹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개인의 이 순선한 본성을 근거로 하여 窮極적인 自我變化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쇠가 된다.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낭만적인 옹호가 결코 아닌 그의 人性理論은 정신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內的源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맹자의 시각에서, 인간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淨化해서 우리 자신이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우며 위대하고 聖人답고 숭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수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인 聖인은 자신의 내적인 수양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聖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自我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聖人的 기질이란 가장 순수하고 성실함을 의미하므로 그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되는가라는 문제와 동일하다. 儒家的인 意味에서 인간됨을 배운다는 것은 自我를 위한 배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혹은 달리 말한다면 나의 人性을 참되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몸과 정

신을 修養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다. 결국 유가의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은 욕심의 근절에서 찾아 할 것이다. 사적인 욕심이 배제될 때, 그러한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만일 인간의 사심에 기인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天理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즉, 타인의 마음에 한을 맺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확산은 곧 현실 세계에 재난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개인의 욕심이 사회 전체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가 상생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상극의 세계로 빠져들어 혼란과 재화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 개개인과 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개인에서 비롯된 상극적인 원리가 확산 실현된다는 것이다. 「典經」에서, “삼계가 개별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¹⁰⁾라는 지적이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재난의 원인에 대한 유가의 입장은 인간의 자각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만을 가지고 이 세계의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상 세계의 실현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선천의 상극적인 원리가 지배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산 사상이 종교 사상으로서 특히 새롭게 부각되는 점은 그것이 막연한 자기 개인의 수련·수도를 통한 완성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세 낙원을 이룩하는 데는 도덕적 자기 완성의 노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¹¹⁾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이러한 점을 아시고 그 근원에 대한 치유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앞에서 지적한 대외적인 문제로 「典經」에 나타난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0) 豫示, 8절

11) 황선명 외, 韓國近代 民衆宗教思想, 학민사, 1983, p. 83

「典經」에,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¹²⁾고 하신 것이나, “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율(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¹³⁾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자각에 바탕을 자율적인 노력이 있다하더라도 이 노력만을 가지고서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근원적인 도를 실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안위나 개인에 국한된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일이다. “여기서 자연적·사회적·우주적 환경 개선이라는 명제가 대두된다. 아무리 선한 마음과 행동을 하려 해도 환경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뜻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하나님인 인간’ 증산은 그의 하나님의 化權에 의해 우주적 원리에 대한 일대 혁명적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¹⁴⁾ 기존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변혁으로 상극적인 세계가 상생의 세계로 바뀌어 지는 것이다. 「典經」, 豫示 편에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

12) 公事, 1장, 3절

13) 教法, 3장, 34

14) 황선명 외, 上揭書, p. 83

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전경, 예시 6절)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예시 7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나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이공사를 행하므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땅에 굽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예시 11절)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쉼 틈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예시 12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13절)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예시 17절)

또 말씀하시기를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일 강태공 조작(更新年更新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하셨도다.(예시 22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이러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의 도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변혁인 것이다. 즉, “이러한 혁명적인 전환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돈의 눈까지 띄워 돈도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구체적인 것이며, 그 일반적 원리는 先天을 지배한 개인과 개인, 종족과 종족, 국가와 국가, 인간과 神(종교)간에 얽힌 모순·대립·투쟁·相克의 원리가 아니라 相生·報恩·협동·화해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완전한 실현이 곧 後天仙境이요, 지상낙원인 것이다”¹⁵⁾

이제 이러한 원을 풀다는 쪽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크고 작은 불만스러운 마음 상태’를 원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풀어야 하는 원은 그 정도가 좀 커서 걱정거리가 되는 것만이다. 그 정도가 가벼운 것들은 그 정도가 큰 원 밑에서 그만 빛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굵은 사람이 음식 맛을 타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사람마다의 근본욕구에 가까운 것 일수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만큼 원도 커지게 된다. 걱정스러운 정도의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원통 또는 원한을 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원통이나 원한이 없다면 원풀이(해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15) 上揭書, p. 8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산이 가르친 원풀이는 본래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서로를 살리는 것은 새 시대의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새 시대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원풀이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사람은 바로 사람이기에 꼭 원풀이가 필요하다. 사람은 본래 욕구의 덩어리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또는 앞서고 처지는 많은 욕구가 끊임없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그 많은 욕구를 뜻대로 다 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소 욕구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저마다의 욕구불만을 꼭 풀어야만 한다. 곧 원풀이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원을 푸는 몇 가지 방향과 그 윤리적인 의미를 살피는 과정에서 차츰 이해될 것이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¹⁶⁾ 여기서 ‘원수를 푼다’는 것은 자기에게 큰 해로움을 끼쳐 원한이 맺히게 한 사람에 대해 그 원한을 푼다는 뜻이다. 이렇게 원수를 푼다는 것도 일종의 ‘원을 푸는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여기서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마다 원을 스스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기에는 저마다 자기가 바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스스로 푼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예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사실 원수를 스스로 푼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예 원수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아예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사람은 본래 ‘욕구의 체계’(욕구의 덩어리)라고 하였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하나의 욕구인데 이 욕구들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따라 서로 이어져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리하여 하나의 근본 욕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 모양의 ‘욕구의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 욕구들 가운데서도 근본욕구에 가까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된다. 이것을 기본 욕구와 파생욕구라고 부를 수 있다.

16) 教法, 1장, 56절

어떠한 욕구도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소 불만을 느끼게 된다. 욕구의 종류에 따라 그 불만의 정도가 달라진다. 적어도 어떤 기분 욕구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소 원한을 품을 수 있다. 아니 어떤 파생욕구에 있어서도 경우 따라서는 원한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조차도 모두 채워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누구나 원한을 품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원한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재빨리 원한을 스스로 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로부터 ‘참는 것’(忍)을 미덕으로 여겨 왔는데 참는다는 것은 ‘원한을 스스로 재빨리 푸는 것’을 뜻한다. 원한을 스스로 푸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원한 자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삶에게도 남과 같이 원한이 있지만 스스로 풀어버릴 뿐이다. 그런 사람도 때로는 꼭 참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한을 푸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원한을 스스로 푸는 것은 이를 떼면 세상에서 문제 거리가 되는 원한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원한이 원한으로서 드러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한을 푸는 노력에는 윤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첫째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로 세상에 문제거리가 되는 원한을 근본적으로 푸는데 큰 의미가 있다. 셋째로 자기 마음을 편안케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원한을 푸는 노력은 원한을 푸는 다른 모든 노력의 기초가 된다. 남의 원한을 풀어주는 노력도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원한을 푸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람이 원래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면 스스로 푸는 데도 이미 어떤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게 된다.¹⁷⁾

17) 최동희, 上揭書, p. 92

2. 相生의 意味

앞 절에서 살펴 본 ‘解冤’이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는 先天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相生’은 後天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선천을 지배했던 모순과 대립과 투쟁이 보은과 협동과 화해의 정신으로 바뀌어 지배하는 근본 원리다. 이것은 오직 경쟁적이고, 지배적이며, 공격적인 요소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분출되므로 경쟁과 대립, 투쟁이란 선천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기심만이 행동의 유일한 동기가 되므로 타인의 삶이란 무관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도 빼앗을 정도로 극단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에대한 중국의 사상가들의 입장도 역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조화를 인간 세계에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것을 먼 미래에나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예기」에서 언급된 ‘大同’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세계로, 인간에 의해 야기된 재앙과 자연의 재난을 포함하는 파괴적인 힘에 의해 시달리는 세계로 분명히 자각하였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역사는 상호 파괴적인 전쟁 행위, 억압, 불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잔인성에 의해 혼란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화는 유기적 과정의 명백한 특성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순박한 낭만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화를 우주의 참된 모습과 우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행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고 믿었다. 세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본다면, 인간사에 일어나는 문제의 타개는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을 잘되게 한다는 적극적인 상생 사상을 실천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인간의 정신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종교간에 다름이 있을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여 같이 잘 살수 있는 도, 즉 상생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모두가 살아 남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도 상생의 도로 민생을 건지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典經」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¹⁸⁾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이다.

나 혼자 만이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잘 살자는 상생의 태도야말로 이기적인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참된 도의 세계를 실천하는 길인 것이다. 상제께서도,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 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¹⁹⁾라고 말씀하시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며 자기 만 잘 살기만을 바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가리켜 주신 것이다.

상제께서 이상으로하는 세상은 모든 사상과 종교가 통일된 세상이다. 이렇게 통일된 세상은 혼란된 사상과 종교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 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²⁰⁾라고 하시어 모든 법을 통합하여 혼란해진 세상을 바로 잡아 통일시키려 하셨다. 그 의미는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했다는 뜻으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道로 통일을 이룩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제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실천 덕목들이 있

18) 公事, 1장, 3절

19) 教運, 1장, 16절

20) 豫示, 13절

다. 그 중에 우리가 당면한 종교나 사상 간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고 참된 도를 펼치기 위해서 먼저 상생사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생 세계의 실천은 이제 인간의 몫으로 돌아 온다. 짜여진 도수를 실천하는 것은 곧 인간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생의 세계는 이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노력은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원한 관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은 「典經」에서도 나타난다.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 밑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북바쳐 방성 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와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이르시니라. 그후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²¹⁾라는 내용은 바로 상생의 도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당시의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내는 노력을 보여 준다.

먼저 여성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조선사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21) 教法 제3장 15절

‘男尊女卑’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1896년 4월에 창간된 「獨立新聞」이 1989년 6월 5일자 논설에서 여성 교육 문제를 다루는데 나타난다. “조선 정부에서 제일 급하게 할 일이 사내 아이들도 가르치려니와 계집아이들을 교육할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조선에서는 계집아이들은 당초에 사람으로 치지를 아니하여 교육들을 아니 시키니, 전국 인구 중에 반은 그만 내버렸는지라 어찌 아깝지 않으리요. 학부에서 사내아이들도 가르치려니와 불쌍한 조선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여학교를 몇을 세워 계집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몇 해가 아니 되어 전국 인구 반이나 내버렸던 것이 쓸 사람들로 될 터이니 국가 경제에 이런 이익은 없고 천시하고 박대하던 여인들을 사나이들이 자청하여 동등권을 주는 것이니 어찌 의리에 마땅하지 않으며 장부의 할 일이 아니리요. 우리는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친구라. 조선 여인네들이 이렇게 사나이들에게 천대 받는 것을 분히 여겨 언제 까지라도 여인네들을 위하여 사나이들과 싸움을 할 터이니 조선의 지각있는 여인네들은 당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아무쪼록 학문을 배워 사나이들과 동등히 되며, 사나이들이 못하는 사업을 할 도리를 하여 보기를 바라노라”²²⁾고하여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시각이 어떠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천시받고 무시받던 상황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없었고, 남자의 일을 가정에서 도와주는 역할에 국한시킨 것이다. 즉,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바깥을 말하지 아니 하며(居內而不言外), 술과 밥을 지으면 족하다(有酒食是矣)고 하니 어찌하여 신체 수족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한가지 사람으로 안방 깊숙히 처박혀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요”²³⁾라는 탄식은 당시의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랜동안 유교의 구습에 젖어 당연히 지녀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많은恨을 품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22) 강제언, 정창렬 譯, 韓國의 開化思想, 비봉출판사, 1994, p. 321. 재인용

23) 上揭書, p. 325. 재인용

상제께서 내세우는 여성 해방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앞의 예는 여성이 천대 받는 상황을 타개해 보자는 근거를 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지금까지 천대받아 온것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典經」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²⁴⁾고 하여, 근본적인 세계의 변혁을 말하고 이로부터 여성의 지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성을 상징하는 하늘만 높이는 잘못을 범했지마는 이제 부터는 여성을 상징하는 땅도 높여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극의 세계에서 상생의 세계로 변화함에 따라 선천에서는 천대 받던 사람들이 원을 풀고, 광명의 세계로 나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의 삶을 도와주는 상생의 관계로 전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습은 사라지게 되고, 후천의 상생의 도리가 남녀의 관계에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典經」에서,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²⁵⁾고하여 선천을 지배하던 도리가 변화되어 여성이 제 위치를 차지하고, 이전의 구습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천명하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후천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보다 향상되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의 뛰어난 점을 지적하였다. 즉,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²⁶⁾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향상을 주장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의 주장과는 다를 뿐 만 아니라, 이것이

24) 教法, 1장, 62절

25) 教法, 1장, 68절

26) 豫示, 45절

갖는 의미는 역시 상생의 도에 근거한 세계의 변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陰陽의 상생 상극하는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陽이 제 패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음과 양의 관계는 갈등 관계, 상극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正陰正陽, 음과 양이 고르게 되는 세상을 말한다. 어떠한 것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때에 음이 지배한다는 것은 음양의 작은 대립 속에서의 음이 아니라 음과 양이 상생 관계에 있을 때의 그 태극의 순환 관계를 음의 관계라 부르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서로 상극하는 것, 곧 양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도 또한 음과 양의 대척적 차원에 있어서의 양의 지배가 아니라 음과 양의 갈등, 파쟁 국면으로서의 태극 순환의 형국을 말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볼 때, 후천 개벽을 음개벽이라 부르고, 후천개벽에선 음이 주장이 되어 조화, 통일, 상생, 화해가 바탕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선천 시대가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수 천 년 동안 억눌려 온 시대라고 본다면, 후천 개벽의 시대는 모권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 지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모권은 역사적 형태로서의 여성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성이 남성 우위에 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음세상이란 상생이 주장이 되고, 상생이 바탕이 되고, 상생이 핵심이 되는 고른 음양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대신 卽自的인 원시적 모권제의 형태가 부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²⁸⁾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삶이 어느 한 곳에 과중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양자가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며, 그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벗어나 있던 위치에서 제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게 되는 계기인 것이다.

또 다른 구체적인 실례는 당시에는 철저히 지켜지던 양반과 상놈의 구

27) 김지하 외, 미륵 思想과 민중 思想, 韓振출판사, 1988, p. 24

28) 上揭書, p. 24

별이다. 이러한 구분은 사실 조선 사회를 지탱해 주는 신분제도로써, 당시의 기득권자로서의 신분을 누리던 위정자들에 의해 붕괴될 수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신분질서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국가의 기본적인 체재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행되는 제도다. 곧 신분질서에 대한 반기는 국가에 대한 대항으로서 인지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는 오백여년 동안 그 체재를 유지해 왔으며, 모든 일들이 이것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이고 상놈은 양반의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존재인 것이다. 모든 일들이 양반 위주로 시행되고, 그들에 의해서 또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실상이므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놈은 윗사람의 지시에 따를 뿐이다. 사실 양반은 상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통치 이념에 대한 반기인 것이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²⁹⁾라고 한 것은 조선시대의 반상의 구별에 대한 철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까지 내려오던 고정 관념을 여지없이 혁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 역시 새로운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계급적인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직분을 갖는 것이지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속적인 관계의 청산은 시대적인 당위성 뿐 만 아니라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원칙인 것이다.

29) 教法, 1장, 10절

이러한 당위성을, 『典經』에서는, “교법 19.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³⁰⁾고 함으로써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스스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 제도를 철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척이 풀리고 모든 사람이 해원된 세상을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진정한 해원 시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 차별과 신분제도에 의한 상놈의 차별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상생의 이치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정하리라’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묻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³¹⁾라고 하신 것이다.

또한 『典經』에서 이르기를,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드나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꼭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³²⁾고 하여, 선천 시대의 부귀

30) 教法, 1장, 9절

31) 教運, 1장, 32절

32) 教法, 3장, 4절

와 명예를 누린 자들은 누린 만큼의 반대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상극의 세계에서 부를 누렸다는 것은 그 만큼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후천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죄과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천 시대에 소외 됐던 계층의 사람들은 이제 해원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위치가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도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³³⁾라는 것과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³⁴⁾라고 하신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생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차별이 사라진 세계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와 빈자, 양반과 상놈, 남성과 여성 간에 있었던 폐단들이 사라진 세계로서 진정한 삶의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 앞에 그려 보이신 것이다.

Ⅲ. 解冤相生에 내포된 사상

1. 和解 사상

이미 상극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욕심에 기인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해원이라면 그것은 화해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해원이란 나 혼자 푸는 것이 아니

33) 教法, 3장 1절

34) 豫示, 7절

라 그 상대도 역시 원한을 풀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척을 짓지 말라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만 만일 이미 척을 지었다면 풀어야 하고 그것은 곧 화해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의 정신은 우리의 무속 신앙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 세계에서는 巫俗이란 단지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인식은 편협한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속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속에는 인간과 신명계의 화해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무속의 의미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와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속으로 분류되는 대상과 행위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신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암시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무속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 우리 문화에 나타난 무속을 보면,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속적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종교나 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 자신의 태도, 즉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과학이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은 가시적인 세계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나 과학이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과학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맹신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과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과학은 현재 인간이 가진 최선의 지식 체계이기는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체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식의 한계 내에서 전체의 부분을 설명할 뿐이다. 무속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무속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무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무당은 죽은 영(靈)과 소통을 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는 하기도 하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한(恨)과 원(冤)을 풀어 주는 일이 무당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당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강신무(降神巫)로서, 무당이 되는 특이한 체험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 체험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한 체험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병을 앓는다든지, 자신과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든지 하는 일들이다. 이러한 병적인 행태를 무당이 되기 위한 단계로 보고, 그것을 무병(巫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무당이 되는 의례를 거치게 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례를 내림 곳이라 하고, 강신무가 반드시 거치는 입신(入神) 의례다. 이러한 무당의 특징은 격렬한 춤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망아(忘我)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로 부터 신령의 말을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무당의 면모는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이질적으로 생각되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타난다. 신전에 거주하는 무녀(巫女)는 격렬한 춤을 통해 망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 때에 무녀는 사지와 온 몸을 부르르 떨면서 거의 또렷한 목소리로 신탁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는 무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성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다.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무당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부 이북 지방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강신무는 시베리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샤머니즘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M.Elidge가

샤머니즘의 본질을 엑스타시(ecstasy) 곧 '망아(忘我)의 고대 원형적 기술(古代原形的 技術)이라고 보고, 샤먼은 그 엑스타시의 대가(大家)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도³⁵⁾ 강신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또 다른 부류는 세습무(世襲巫)로서, 가계(家系)를 통해 대대로 전수되는 무당이다. 이러한 무당은 강신무와는 달리 한 지역에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원칙적으로 세습무는 마을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전라도에서는 이러한 단골 관계에 있는 무당을 '당골'이라고 하며, 이 무당은 대대로 마을의 종교적 행사인 산신제와 같은 의례를 담당하고 그 마을로 부터 보수를 받는다. 당골은 마을 단위의 존재며, 당골이 하는 일이 비록 개별적 신앙 행사라 해도 마을 안이라는 단위가 전제가 된다. 마을 사람들은 당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습무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성에 의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강신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무당에 의해서 행해지는 주요한 행위는 굿이다. 굿은 크게 마을굿, 무굿, 개인굿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마을굿은 주로 마을의 평안과 주민 전체의 길복을 빌기 위해 행해지며, 마을 전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굿이다. 이러한 굿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통합을 가져오고,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무굿은 주로 강신무 사이에서 행해지는 굿으로 무당이 되는 통과의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개인굿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으로 무당의 주된 행사다. 이 굿은 집안의 복을 비는 재수굿과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넋굿, 병을 치유하는 기능을 하는 병굿으로 구분된다. 재수굿은 재수가 있기를 바라는 굿이지만, 더 많은 재산을 얻고자 할 때도 행해지는 굿이다. 불의의 사고를 막고, 실패가 번창하도록 하는 굿이다. 넋굿은 사령제(死靈祭)로서 죽은 영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다. 진오기 혹은 지노귀굿이 바로 이 굿이다. 지방마다 명칭이 차이가 있는데, 함경도의 망무귀굿, 평안도의 수양굿, 전라도의 씻김굿, 경상도의 오구굿 등이 이 굿이다. 이 굿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죽은 영혼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빨리 저승으로 보내어져서 안주시키는 굿이다. 병굿은 우환굿으로도

35) 정진홍,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화, 전망사, 1983, p. 132

불려진다. 이 곳은 병의 원인을 잡귀나, 자식이 없어서 일정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한 뜯귀가 사람에게 붙어서 일어난다고 보고, 그러한 귀신들을 떼어 내는 곳이다.

이러한 곳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공통성은 和解의 정신이다. 굿판이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소로서, 인간과 신령이 화해하여 맺혔던 원과 한이 남김없이 풀어지는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화해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무속은 고대부터 현재 까지 우리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무속이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실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방관하고 무시하는 풍토 속에서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관계를 잃지 않고 유지시켜 왔다. 현대의 세계는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무속은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아직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돌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무속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순 사상과의 관계를 보면, ‘解冤’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巫俗의 ‘解冤’은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었다. 개인적인 원망이나, 한, 질병 등이 무속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로 解冤의 이념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解冤’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신명계의 화해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2. 利他 사상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동·서양 사상가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에 근거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주의는 오늘 날 세계적 풍조이며, 우리 한국인의 생활 태도에도 널리 침투되어 있다. ‘이기주의’라는 말을 아주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 인

간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랄 수 밖에 없으며, 이기주의는 생물계의 필연적인 사실로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경해도 성립할지 모른다. 모든 생물은 첫째로 자아의 보존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른바 滅私奉公의 미덕이라고 칭찬을 받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을 위하는 행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는 소아로서의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남의 권익을 돌보지 않는 반 사회적 이기주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상식적 의미의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긴 안목으로 볼 때, 필경은 자기 자신의 불행을 초래하는 생활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생활 태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⁶⁾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란 자신의 이익 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신의 고통 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때,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慈悲의 정신이나 유교에서 강조하는 仁의 정신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즉,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출발점은 타인의 삶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다 추구하여 이루어 놓고 난 후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먼저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仁의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인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우선하면서 인정받는 선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타주의의 정신은, 대승불교에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成佛을 늦추겠다'는 중생 구제의 의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유교에서는, '내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준다'는 정신에서 이타적인 정신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타주의는 결국 自利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면, 자신 역시 타

36) 한국 국민 윤리학회, 사회사상과 윤리, 형설 출판사, 1989. p. 80

인으로 그러한 도움을 받게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타는 곧 자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뭏든 이러한 이타의 정신은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배후에는 함께 참된 삶을 이루자는 의식이 들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삶에 무관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삶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동체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언급되는 사후세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죽은 후에 어떠한 사후세계로 갈 것인지는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판단되어지는 삶의 내용이란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사후세계를 말하든지 안하든지에 관계없이 인간의 삶의 의미란 현재 살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어떻게 이루지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를 생각해 보자. 먼저 인간은 누구나 행동을 유발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인간의 욕구가 동물의 욕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가치 의식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인간의 욕구는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고 이와같은 일은 더욱 더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가치의식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가치의식의 어느 쪽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치 의식은 평소의 생활 경험에서 복잡하게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 도움되는 행동,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혹은 좋게 생각하고, 혹은 나쁘게 생각하는 평가의 태도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운위되는 것도 실은 욕구의 충족과 관계가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인간이 취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삼아 형성된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인 까닭에 개인적 욕구의 충족까지도 사회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삶의 반경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목표를 갖게 된다. 흔히 말하는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은 그러한 공동체의 생활안에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남의 행동에 대하여 서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그 깊은 관심은 곧, 평가와 간섭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공동 목표의 달성 또는 그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찬양의 반응을 보이고, 그 반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찬양과 비난의 반응이 어떤 고정 개념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을 때 관습이 탄생하게 되며, 관습이 오랜 자기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며, 세련된 형태를 갖추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윤리 또는 도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행동 가운데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이 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향이 현저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익이 되는 경향의 행동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향의 행동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그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난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典經」에서도,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³⁷⁾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한 개인의 마음 속

37) 教法, 3장, 24

에서도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욕구가 대립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욕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도 그 두 사람 또는 집단이 충돌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또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욕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도 그 두 사람 또는 집단이 충돌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생활 가운데서 욕구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충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하거니와, 그 충돌을 가장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³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이 곧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나 도덕은 충돌하는 욕구를 조절하여 될 수록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행위의 처방이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공평하고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은 다름 아닌 충돌하는 욕구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³⁹⁾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인 체제 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충되는 갈등을 그 욕구가 일어난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해결은 진정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 욕구를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典經」에서도,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이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濟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

38) 우종모 외, 산업사회와 윤리, 문정사, 1993, pp. 82 - 83. 참조

39) 上揭書, p. 83

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⁴⁰⁾라고하여, 천하에 폐해가 일어난 것은 '응패의 술'이라고 지적하여,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폐해를 막는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타인의 삶을 올바르게 도모하는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⁴¹⁾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이타적인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에는 상생의 의미가 들어 있다. 상생이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차별을 없애고 함께 잘산다는 의미가 들어 있듯이,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생각과 행동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 즉, 상생이란 이타적인 실천이 행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에 바탕을 둔 이타적인 행위가 실천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典經」에서,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⁴²⁾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원한을 풀어 버리고, 남을 잘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원상생의 정신은 이타적인 행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원상생에는 이러한 이타사상이 내포된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結 論

현재 우리가 처한 종교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상제님의 참된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생 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사상에 입각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올바른 도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상생 사상을 실천하는 한 방도다. 상제님께서도,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 하려도 되나니 ---”라고 하시어 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

40) 教運, 1장, 16절

41) 教法, 1장, 2절

42) 教法, 1장, 56절

거나 멸시 할 것이 아니라 참된 도를 깨우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신 이유도, 처음에는 인간들의 구제는 인간 중에서도 훌륭한 성인(聖人)들에게 맡겨 졌으나 그 구제는 이룩되지 못하였고 도리어 보다 많은 갖가지 고난 만이 일어났기 때문에 탄강하시게 된 것이다. 「전경」에서,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사 천지신명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 오셔서 삼계를 둘러 보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면서 인간계에 천명과 신교를 내려 제세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라 할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상생 사상을 실천하는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무엇 보다 인간의 정신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종교간에 다름이 있을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여 같이 잘 살수 있는 도, 즉 상생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모두가 살아 남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도 상생의 도로 민생을 건지려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전경」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⁴³⁾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이다.

상제께서 이상으로하는 세상은 모든 사상과 종교가 통일된 세상이다. 이렇게 통일된 세상은 혼란된 사상과 종교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 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13절)라고 하시어 모든 법을 통합하여 혼란해진 세상을 바로 잡아 통일시키려 하셨

43) 公事, 1장, 3절

다. 그 의미는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했다는 뜻으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道로 통일을 이룩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제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실천 덕목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당면한 종교나 사상 간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고 참된 도를 펼치기 위해서 먼저 상생사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 혼자만이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잘 살자는 상생의 태도가 말로 이기적인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참된 도의 세계를 실천하는 길인 것이다. 상제께서도,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 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⁴⁴⁾라고 말씀하시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며 자기 만 잘 살기만을 바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가리켜 주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많은 사상과 종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우월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상제께서는 미리 예견하셔서,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다”⁴⁵⁾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동서양의 모든 사상과 종교의 진액을 모아 이루어 놓으신 대순사상의 포용성을 나타내 보이신데 있다. 현대의 사회가 많은 사상과 종교로 혼란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상황이고, 무지한 인간들이 참된 도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무지하고 상제님의 깊고 넓은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순 사상의 참된 도가 점차 세상에 펼쳐지면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웠던 무지는 사라질 것이고, 참된 도의 세계에 들어와 모든 원한이 사라진 세상,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상생하는 세상, 바

44) 教運, 1장, 16절

45) 教法, 3장, 38절

로 후천의 선경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 大巡思想의 現代的 理解,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8
- 甌山の 生涯와 思想,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79
-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카톨릭 신문사, 1988
- 황선명, 민중종교와 권위신앙, 도서출판 주류, 1982
- 한승조, 역사와 민족종교, 도서출판 주류, 1983
- 강재언著, 정창렬譯,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 출판사, 1994
- 김지하 외, 미륵思想和 민중思想, 한진출판사, 1988
- 조셉 니담, 이석호 外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2, 을유문화사, 1986
- 金景芳 外,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옮김, 易의 철학, 예문지, 1993
- 劉澤華, 노승현 譯, 중국 고대 정치 사상, 예문서원, 1994
- 진고응, 최진석 外 譯,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예문서원, 1996
- 황선명 외, 한국근대 민중 종교 사상, 학민사, 1983
- 郭信煥, 周易의 自然과 人間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 大學院, 1986
- Frederick J. Streng, 鄭鎮弘 譯, 宗敎學 入門, 大韓基督敎書會, 1975
- 鄭鎮洪, 宗敎學 서설, 전망사, 1980
- 岸本英夫, 宗敎學, 김영사, 1983
- 라다크리슈난, 라주편저, 郭徹 譯,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문출판사, 1979
- 서광선, 宗敎와 人間, 이대출판부, 1975
- Frederick Sontag, 하느님 - 그 현대적 논의, 도서출판 主流, 1984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집문당, 1994
- 金勝惠, 原始儒敎, 서울, 민음社, 1990
- 金忠烈·孔繁 外, 孔子思想과 21세기, 서울, 東亞日報社, 1994
- 金勝惠, “유가적 인간상과 구약적 인간상”, 「東亞文化」제19집, 1981
- 金忠烈, 中國哲學史, 예문서원, 1994
- 서경수 외 2인, 종교와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金夏泰, 自我와 無我, 延世大學校 出版社, 1980
- 동서 철학의 만남, 종로서적, 1985
- 馮友蘭, Derk bodde 譯,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Vol.1,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 정진흥, 基督教와 타 宗教와의 대화, 전망사, 1983
- 한국 종교학회, 종교연구, 제 5집, 1989
- 이현희 엮음,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84
- 최준식 편저, 개혁시대를 여는 사람들, 주류성, 1998
-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 최준식, 한국 종교 이야기, 한울, 1995
- 우종모 외, 산업사회와 윤리, 문정사, 1993
- 김탁, 증산교學, 미래향 문화, 1992
- 제임스 레이첼스, 김기순 옮김, 도덕철학, 서광사, 1989
- 한국 국민윤리 학회 편, 社會思想과 倫理, 형설출판사, 1989
- 송항룡, 韓國 道教哲學史,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7
- 이은봉, 韓國 古代 宗教思想史, 집문당, 1984
- 정진흥, 한국 종교 문화의 전개, 집문당, 1986
-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 정음사, 1987
-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1989
- 이상일 외, 한국사상의 원류, 박영사, 1983
-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신명출판사, 1989
- 구보 노리따다著, 최준식 譯, 도교사, 분도출판사, 1990
- 요시오카 요시토요 著, 최준식 譯, 中國의 道教, 민족사, 1991